

DISASTER RESILIENCE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도 방재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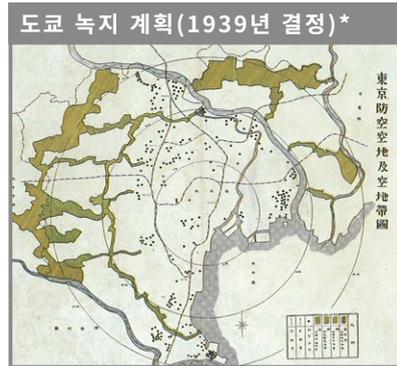
도심부를 둘러싼 형태로 목조의 주택이 밀집하는 지역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도로의 정비나 주택의 개축 등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노후화한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시 녹지로 둘러싸인 안전한 시가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분포

야마노테 선 외주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목조주택 밀집지역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 기반이 불충분하며 노후화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지진 화재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시기와 함께 살기 좋은 공간의 정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찌기 도쿄에는 시가지의 팽창을 억제하고 녹지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그린벨트 구상이 있었습니다.

출전: * 사단법인 일본 공원 녹지협회 「탄생 백주년기념 기타무라도쿠타로 공원 녹지 논집」 1995년 발행



화재시 시가지가 연소되는 것을 막는 한편 피난이나 구원 활동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도로를 정비하고 길가의 건축물의 불연화에 노력합니다.



안전한 피난 장소의 확보나 광역적인 피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구내 잔류 지구」를 확대, 대규모 시가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대규모 도시 개발시 비상용의 발전기나 생필품 비축 창고, 귀가 곤란자를 위한 일시 체재시설의 정비 등을 함께 진행하여 재해시도 자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공: [재해시의 모델] ©아사히 신문사

연소 차단대의 형성

시가지의 불연화



피난 장소 등의 확보

재해시의 모델

2011년 3월 재난 직후의 혼란 중, 이재민들의 질서 있는 행동이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되었으며 신문에도 기사화 되었습니다.



노후화한 주택의 개축을 서두르는 등 시가지의 화재방지를 꾀하고 「불타지 않는 거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